

1부 - 페어베언(W.Ronald D Fairbairn) 이론 중심으로 - 나쁜 내적 대상으로 인한 만성적 좌절과 중독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책을 기본 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P14

탈인격화와 비현실화와 같은 뚜렷한 정신병적 증세뿐만 아니라 진짜 같지 않은 감정(자신에 대해서 낮은 느낌을 갖거나 낮은 것에 대해 친숙한 느낌을 갖는)과 같은 비교적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현실감의 장애들도 본질적으로 분열성 현상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낮은 것에 대해 친밀하게 느끼는 증상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시증(déjàvu)을 들 수 있다. 이 흥미로운 현상은 분열성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몽유병, 기억상실증, 이중인격, 다중인격 등이 기본적으로 분열성 현상에 속한다는 사실은 자네(Janet), 제임스(William James), 그리고 프린스(Morton Prince)에 의해 보고된 수많은 사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자네가 '히스테리' 환자에게서 관찰한 해리 현상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에 대한 기술과 같은 것이었다. 이 사실은 내가 도달한 결론, 즉 히스테리 성격은 항상 분열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을 확인해준다.

'분열성'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분열성 현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된다면, 분열성 집단은 매우 포괄적인 것이 된다. 예를 들면, 광신주의자들, 선동가들, 범죄자들, 혁명가들, 그리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대부분의 사회병질적 성격 부류가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덜 분명한 형태에서, 분열적 성격은 지식인 계층에서 흔히 발견된다. 자본가에 대한 지식인의 경멸과 무식한 사람들에게 대한 고고한 예술가의 냉소는 분열성의 경미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 예술, 과학 등에 대한 지적인 추구는 다양한 정도의 분열성 요소를 지닌 개인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과학적 추구는 사고 과정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거리감을 갖는 분열성 성격의 태도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다.

p15

강박증 환자가 과학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과학이 질서정연하고 꼼꼼한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분열성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분열성 범주에 속하는 개인들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1) 전능적 태도 (2) 고립 또는 거리감을 유지하는 태도 (3) 내적 실재에 대한 몰두. 그러나 이런 성격들이 결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능적 태도는 다양한 정도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일 수 있다. 그것은 어떤 특정 영

역 안에서만 작용할 수도 있다. 그것은 과보상될 수 있으며 겉으로 드러난 열등감 또는 굴욕적인 태도 아래 숨겨질 수도 있다. 또는 그것은 하나의 소중한 비밀로서 취급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고립을 유지하거나 거리감을 갖는 태도는 사회성이라는 겉모습에 의해서 혹은 특정한 사회적 역할에 의해서 감추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개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내적 실재에 대한 몰두는 모든 분열성 성격의 가장 중요한 특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내적 실재는 외적 실재와 동일시되거나 또는 외적 실재 위에 덧씌워짐으로써 오히려 외적 실재에 대한 몰두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분열성이라는 개념은 융이 내향적유형이라고 부른 것과 크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융은 정신분열증(조발성 치매)이 내향적 유형에서만 일어난다고 말함으로써, 내향적 성격과 분열성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p16

분열성 현상은 근본적으로 자아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극도의 고통이나 난관이나 박탈의 상황에 처할 때, 가장 깊은 수준에서 분열의 증거를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통합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p17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시증으로 알려진 과거와 현재 그리고 환상과 현실 사이의 이상한 혼돈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본질적으로 분열성 현상에 속한 것이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분열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보편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꿈이다. 프로이트가 그의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꿈꾸는 사람은 꿈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인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나는 꿈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1) 꿈꾸는 사람의 성격의 일부를 나타내거나 (2) 동일시에 의해서 그의 성격 부분이 관계 맺고 있는 대상을 나타낸다고 본다.

p19

유아의 자아는 무엇보다도 '입 자아'로 묘사될 수 있다; 이것이 모든 개인들의 계속되는 발달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영향은 분열성 특징을 나타내는 개인의 경우에 더욱 특별한 것으로 드러난다. 유아에게 있어서 입은 욕망의 주된 기관이요, 만족과 좌절의 주된 매개이며, 사랑과 증오의 주된 통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친밀한 사회적 접촉의 첫 번째 수단이다. 개인이 확립하는 첫 번째 사회적 관계는 그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어머니의 젖가슴이 리비도적 대상의 초점이 되고 아기의 입이 리비도적 태도의 초점이 되는 첫 빨기 상황이다. 따라서 이때 확립된 관계의 성질은 이후의 개인의 관계들과 그의

일반적인 사회적 태도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초기 구강기에 리비도가 고착되는 경우, 초기 구강기 동안에는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던 리비도적 태도가 과장된 형태로 지속되게 되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p20

그 결과, 젓가슴 자체가 리비도적 대상이 되는 경향, 즉 전체 대상으로서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신체 기관 또는 부분 대상이 리비도적 대상이 되는 경향을 갖는다. (2) 리비도적 태도는 본질적으로 '주기' 보다는 '취하기'(taking)에 치중된다.

(3) 리비도적 태도는 단지 취하기뿐만 아니라 함입하기와 내재화하기(incorporating and internalizing)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4) 리비도적 상황은 포만감과 공허감의 상태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한다. 아이는 배고플 때 공허감을 느끼고 만족하게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낀다. 반대로 엄마의 젓가슴, 즉 아이의 견해에서 볼 때 엄마 그 자체는 수유 이전에는 가득 차 있고 수유 이후에는 텅 비게 된다. 아이는 엄마의 상황을 자신의 포만감과 공허감의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박탈이 발생할 경우, 공허감은 아이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는 자신에 대해 공허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엄마를 텅 비게 만들었다고 해석한다. 이것은 특히 박탈이 그의 구강기 욕구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욕구에 공격적인 요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박탈은 아이의 함입 욕구를 확대시킴으로써 젓가슴 안에 담긴 내용뿐만 아니라 젓가슴 자체를 그리고 그의 엄마 전체를 함입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젓가슴을 텅 비게 하는 경험에 대한 불안은 그의 리비도적 대상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며, 보통 엄마가 수유 후에 아기를 혼자 남겨둔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인상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그의 리비도적 태도는 리비도적 대상의 증발과 파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또한 아이가 좀 더 자란 후에 자신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것이 사라진다는 사실, 즉 그가 케익을 먹는다면 그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 의해 확인된다.

p22

분열성 특성을 드러내는 개인에게서 발견되는, 부분 대상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대체로 초기 구강기 이후 아동기에 부모와의 불만족스런 정서적 관계에 의해 생겨난 퇴행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퇴행을 자극하는 어머니들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애정의 표현을 통해서 아기를 인격적 존재로 사랑하는데 실패한 어머니들이다. 소유적인 어머니와 무관심한 어머니 모두가 이 범주에 속한다. 최악의 경우는 소유적이면서 동시에 무관심한 어머니인데, 예를 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독자를 버릇 없이 키우지 않겠다고 작정한 헌신적인 어머니가 여기에 속한다.

p23

자신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확신시키지 못하는 어머니의 아이는 어머니와 인격적 및 정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 결과, 그는 보다 초기의 단순한 관계형태로 퇴행하며, 부분 대상으로서의 젖가슴 관계를 재생시킨다. 이런 종류의 퇴행은 정신분열증 청소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실제 어머니에 대해서는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의 침실 아래에 있는 방안의 침대에 누워 천장에서 쏟아지는 젖을 먹고 있는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다.

초기 구강기와 관련된 정신병리적 경향성을 지닌 개인들은 정서적으로 주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는다. 이 점에서 구강 함입적인 요소가 가장 근본적인 경향성이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경향성은 배설 활동(배변과 방뇨)과 관련된 것이다. 이 배설 활동의 생물학적인 목표는 물론 몸으로부터 쓸모 없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목표와 함께 아이는 그것을 자신의 나쁜 리비도적 대상을 취급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이러한 배설 활동은 아이의 최초의 창조적 활동을 나타내며, 그 산물은 그의 창조물이다. 즉, 그것은 그가 외재화시키는 내적 내용물이며 그가 제공하는 첫 번째 생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배설 활동은 본질적으로 취하기의 태도를 갖는 구강기적 활동과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이 두 리비도적 태도 사이의 특별한 대조와 함께 그 이면에 또 하나의 대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대상에 대한 구강 함입적 태도는 대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대상에 대한 배설적 태도는 대상의 가치절하와 거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의 심층 차원에서 정신적 내용물과 신체적 내용물 사이에 정서적인 동등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후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그가 전자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분열성 성향을 지닌 개인은 정신적 내용물에 대해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초기 아동기의 구강 함입적 태도 안에 내포된 신체 내용물에 대한 과도한 가치 부여에 상응하는 것이다. 정신적 내용에 대한 과대평가는 사회생활에서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지닌 정신분열증적 성향을 지닌 개인에게서 잘 드러난다. 그러한 개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주기 (giving)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은 동시에 정신 내용물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자주 사회적 접촉을 극도로 피곤한 것으로 경험한다. 누군가와 얼마동안 함께 있게 된다면, 그는 멍한 상태에 처하게 되며, 다시 원래의 정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나의 환자 중 하나는 자신의 약혼녀와 만날 때 너무 자주 만나면 자신이 고갈된다는 이유로 어제 만났으면 오늘은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곤 했다. 이와 같은 분

p25

열성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의 경우, 정서적 상실에 대한 방어는 감정을 억압하고 정서적 거리감을 유지하는 태도를 야기하는데, 이는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

들을 자신과 멀리 떨어진 존재로, 심지어는 인간이 아닌 존재로 취급하게 만든다. 이러한 개인은 흔히 “닫혀진 성격”으로 묘사되는데, 그가 정서를 담아 놓는다는 점에서 이 표현은 매우 적절하다. 정서적 상실에 대한 불안은 때때로 기이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분석을 받으러 온 한 청년과의 첫 면담에서 나는 비록 그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에게 근저의 분열성 경향을 암시하는 일종의 신비스런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탐지했다. 이 환자는 대학생이었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이었다. 구술시험은 그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부가했다. 놀랍게도 그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을 때조차도 대답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좀 더 깊은 수준에서 볼 때, 대답하지 못하는 그의 어려움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시험관에게 자신이 힘들게 획득한(내재화한) 것을 주는 것으로, 즉 자신에게 소중한 무엇을 떠나 보내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정서적으로 주지 못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열성 성향을 지닌 개인들은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그중에는 무엇보다도 역할 놀이 기술과 자기 과시 기술이 있다.

(a) 역할 놀이 기술

분열성 개인은 역할 놀이를 함으로써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상당히 인상적인 사회적 접촉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

p26

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는 아무것도 주거나 상실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가 그러한 행동 속에 그의 성격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부분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자기 노출 경향은 분열성 개인에 있어서 항상 두드러진 부분을 차지해왔다. 그것은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며 종종 불안 때문에 위장된다. 분열성 성향을 지닌 개인들이 문학과 예술 활동에 매력을 느끼는 부분적인 이유는 이러한 활동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사회적 접촉 없이도 과시할 수 있는 표현의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시주의를 방어으로써 사용하는 것은

p 27

그것이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실제로는 주지 않는 "주기" 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상실하지 않으면서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해결 방식은 또 다른 어려움을 수반한다. 원래 주는 행동에 포함되었던 불안이 보여주는 행동으로 전이됨으로써 “보여주기”(showing off)는 “자랑하기” (showing up)의 성질을 갖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보여주는 상황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 있으며, “보여지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의식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p28

3. 리비도적 태도 안에 있는 함입적 요소(incorporative factor)

정서적 좌절이 주어질 때 아이는 쉽게 초기 구강기적 태도로 퇴행하게 된다. 그때 아이는 (a) 자신이 어머니에 의해서 진정으로 사랑 받지 않고 있다고 느끼며, (b) 어머니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

(a) 아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녀를 나쁜 대상으로 간주한다.

(b) 아이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의 사랑을 좋은 것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그의 사랑을 자신의 내부에 보유한다.

(c) 아이는 일반적으로 외부 대상과의 애정 관계는 나쁜 것이거나 적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느낀다.

그 결과, 아이는 자신의 대상과의 관계를 내적 현실의 영역으로 옮기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 영역은 초기 구강기 동안에 좌절의 상황에서 그의 어머니와 그녀의 젖가슴이 이미 내적 대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영역이다. 초기 구강기 이후에 이어지는 좌절의 상황에서 대상의 내재화는 더 뚜렷이 방어적인 기술로서 사용된다.

p 29

초기 구강기 단계에 고착이 발생한다면, 함입적 태도가 자아의 구조 안에 형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열성 성격 요소를 지닌 개인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닌 의미를 전적으로 내면세계로부터 가져오는 경향을 갖는다. 실제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 드러나듯이, 이 경향은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 사이의 구별을 모호케 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그들의 대상이 외부가 아닌 내면세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내적 대상들과 강하게 동일시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이 사실은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으로 주지 못하는 어려움을 부채질한다. 주는 것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고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자기 존중감을 촉진시키지만, 대상관계가 주로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개인에게 있어서, 주는 것은 가치절하와 자기-존중감의 저하를 가져온다. 그러한 개인은 주는 일을 할 때 고갈을 느끼는데, 그것은 그들이 줄 때 자신의 내면세계가 값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이 여성일 경우, 그녀는 출산에 대한 엄청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그녀가 출산을 아이를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실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의 환자 중에는 이런 유형에 속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출산 시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

다. 이 경우 그녀가 떠나보내지 못하는 내용물은 신체적 내용물이었으나 이것은 정신적인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그림을 완성한 후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창조했고 획득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예술가가 있다.

p30

분열성 개인은 주기와 창조하기에 따른 고갈의 느낌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종 흥미로운 방어를 사용한다. 그는 자신이 준 것 또는 창조한 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한다. 방금 예로 들었던 예술가의 경우, 그는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 그 그림에 대한 흥미를 모두 잃어버렸다. 따라서 완성된 그림은 화실 구석에 처박히거나 싼 값으로 처분되어야 할 상품으로 취급되었다. 이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여성들은 종종 자신이 출산한 아이들에 대한 모든 흥미를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한편, 분열성 특성을 지닌 개인들은 정신적 내용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 정반대 형태의 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즉, 그들이 만들어 낸 것들이 아직도 그들 자신의 정신적 내용의 일부인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상실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한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아이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과는 달리 그 아이를 계속해서 자신의 내용물로 취급하고, 따라서 그에게 과도한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소유적이고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이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상실의 느낌으로 인해 방어적인 화가는 자신의 그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후에도 아직도 그 그림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곤 한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형태의 방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화가는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거나 전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저술가는 책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자신을 드러낸다. 이처럼 분열성 경향을 지닌 개인

p31

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는 다양하다. 그런 개인은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물이 내적 세계로부터 외적 세계로 넘겨진 후에도 자신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산출한다.

내적 세계에 몰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은 분열성 개인의 중요한 특징인 주지화 경향이다. 그것은 강력한 방어적 기술이며,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매우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한다. 주지화는 사고 과정에 대한 과대평가를 포함하며, 이 과대평가는 분열성 경향이 있는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접촉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내부 세계에 대한 몰두와 그에 따른 감정의 억압으로 인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정서적인 문제를 지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끈다.

p32

분열성 특징이 경미한 정도로만 나타나는 개인들의 경우, 사고와 감정 사이의 분리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서적 가치를 지적 내용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고 과정을 크게 중요시하는 특성을 드러낸다. 이런 개인들은 사람과 함께 정서적 관계를 발달시키기보다는 정교한 지적 체계를 세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p33

분열성 인격을 지닌 개인이 어떤 지적체계와의 사랑에 빠질 때, 그는 그것을 경직되게 해석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적용하는 광신도가 된다. 그는 자신의 지적 체계를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성향과 능력을 갖게 되고, 이는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

분열성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보다 보편적인 현상은 현실의 삶으로부터 물러서서 우월한 태도를 지닌 채 세상을 깔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분열성 성향을 지닌 개인들의 경우, 그들은 언제나 내적 우월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그 사실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치료과정에서 그 사실을 의식하기까지는 상당한 저항을 극복해야 하며, 특히 그러한 우월감의 근원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그 우월감의 근원은 (1) 정신적이건 신체적이건 개인적 내용에 대한 비밀스런 과잉-가치화(over-valuation)와 (2) 내재화된 리비도적 대상들(어머니의 젖가슴과 아버지의 페니스)과의 비밀스런 동일시 및 그것들에 대한 소유감으로부터 오는 자기애적인 자아 팽창이다. 여기에서 비밀성의 요소가 지닌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치 않다. 이것이 바로 분열성 개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비밀스럽고 신비스런 분위기에 대한 설명이 된다.

이들이 비밀성에 대한 내적 강제를 느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흠친 내적 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무한히 소중한 것 (심지어는 생명 그 자체만큼이나)으로 여겨지는 내적 대상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 대상을 내재화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p34

이와 같은 내적 대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비밀스런 느낌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예외적이며, 유일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이 차별감은 “왕따당한다”는 느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런 개인들은 소외당하는 주제와 관련된 꿈을

자주 꾸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개인은 아동기 시절에 흔히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귀한 아들이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 축에 끼지 못하고, 다른 보통 아이들이 학교 게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과는 달리 공부에만 매달리는 아이였던 것으로 드러난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지적인 영역의 성취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는다. 실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그들의 어린 시절 어느 기간에 매우 공부를 잘했고 그 방면에 유망한 아이였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분열성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갖는 우월감에 대해 좀더 깊이 살펴본다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그들은 삶의 초기 시절에 어머니가 자신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2) 그로 인한 박탈감과 열등감으로 인해 어머니에게 심각하게 고착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3) 이 고착에 수반되는 리비도적 태도는 극단적인 의존성뿐만 아니라 고도로 자기 보존적이며 자기애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4) 초기 구강기의 태도로 퇴행함으로써 내재화된 젓가슴 어머니에 대한 리비도적 집중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재화 과정 자체가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까지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으며, (5) 따라서 외부 세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내적 세계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p35

4. 대상을 텅 비게 만드는 리비도적 태도

대상을 텅 비게 만드는 것은 초기 구강기적 태도가 지닌 함입적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빨간 모자 소녀의 비극은 초기 구강기 아동의 비극이다. 물론 이 동화는 대부분의 동화가 그렇듯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리고 물론 실제의 유아는 자신이 먹어버렸다고 걱정했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기의 아동은 조직화된 경험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안을 스스로 달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은 어머니가 자신의 파괴적 함입 욕구에 의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의식적인 지식을 획득한다. 그리고 초기 구강기 동안의 박탈에 의해 발생하는 외상적 경험은 전부 억압된다.

p36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연결된 불안은 무의식 안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그와 유사한 종류의 경험에 의해 쉽게 활성화된다. 아동이 초기 구강기에 두드러진 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만약에 그가 그 후에 어머니로부터 실제로 사랑받지 못하거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녀가 그의 사랑을 가치 있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외상적 상황은 재활성화 되기 쉽다.

아동이 어머니의 젓을 빠는 것은 그의 첫 번째 사랑 경험의 표현이다. 따라서 그의 이후의 모든 사랑 대상과의 관계는 이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또한 그의 첫

번째 사회적 관계의 경험이며, 따라서 그의 모든 이후의 사회적 태도를 위한 기초가 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이 어머니에 의해 진정으로 사랑 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초기 구강기에 고착된 아동에게 발생한 외상적 상황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문제는 초기 구강기에 발생했던 최초의 외상적 상황이 그의 이후의 삶의 과정에서 재 활성화 되고 재현된다는 점이다. 그 아동은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그녀의 사랑을 파괴했고 사라지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랑이 파괴적이고 나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p37

후자의 경우, 아동은 본질적으로 양가감정을 지닌 채, 어머니의 사랑을 파괴시킨 것은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증오라고 해석한다. 즉 나쁜 것은 그의 증오이며, 그의 사랑은 좋은 것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심리적 자리가 조울적 정신병의 근저에 놓여있으며, 그것은 우울적 자리를 구성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분열성 문제의 근저에 있는 심리적 자리는 양가감정 이전의 초기 구강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심리적 자리를 지닌 개인은 자신의 사랑이 나쁘다고 느끼는데, 그것은 그 사랑이 자신의 리비도적 대상들을 파괴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적 자리는 분열적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의 한 환자는 내게 과일을 선물하고 난 다음 면담에서 "설마 독을 잡수신것은 아니겠죠"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같은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분열성 개인이 자신의 사랑을 떠나보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느끼는 감정 외에도, 자신의 사랑을 내부에 간직하고자 하는 또 다른 동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p38

그는 자신의 사랑을 풀어놓는 것이 대상들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내부에 간직하고자 한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안전한 곳에 보관할 뿐만 아니라 지하 창고에 가두어 둔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나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도 비슷할 거라고 해석한다.

이런 이유로 나의 환자였던 젊은 분열성 여성은 내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선생님은 결코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분열성 개인이 사회적 접촉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거리감을 지닌 상태에 머무르는데 항상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정반대로, 그는 종종 자신의 리비

도적 대상들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쫓아내기 위해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는 공격성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증오를 활성화시켜서 자신의 리비도적 대상들을 향해 발산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말로 다투고 무례하게 행동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대상들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을 증오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기보다는 증오하도록 유도한다. 그는 자신의 리비도적 대상들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 마치 방랑 시인 처럼(또한 아마도 독재자들처럼), 그는 단지 자신을 멀리서만 사랑하고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p 39

이것이 분열성 개인이 처한 두 번째 비극이다. 첫 번째 비극은 그가 자신의 사랑이 사랑하는 대상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요, 두 번째 비극은 그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증오하고 증오 받고자 하는 충동에 굴복하는 것이다.

리비도 이론은 물론 성감대 개념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성감대는 단지 리비도가 흐르는 경로일 뿐이며, 리비도가 그 경로를 따라 흐름으로써 그 경로가 성감대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리비도의 궁극적 목표는 대상이다;

p 45

그리고 대상을 추구함에 있어서 리비도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저항이 가장 적은 통로를 찾는다. 따라서 성감대는 단순히 저항이 가장 적은 리비도의 통로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성감대의 실제 민감성은 전류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magnetic field)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성기기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로 인해 대상관계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정 반대로, 만족스러운 대상관계가 형성되었다는

p46

사실로 인해 진정한 성기적 성욕에 도달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p48

대상관계의 발달은 본질적으로 대상에 대한 유아적 의존이 점차 대상에 대한 성숙한 의존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은 (a) 일차적인 동일시'에 기초한

p49

최초의 대상관계를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5) 대상 분화에 기초한

대상관계를 점진적으로 차용하는 것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대상관계 성질의 변화는 리비도적 목표의 점진적 변화를 수반한다.

p50

거절된 내적 대상을 외재화할 때 편집증적 개인은 그것을 사정없이 나쁜 것으로—실제 박해자로 취급한다. 다른 한편, 강박적 개인에게 배설 행동은 대상의 거절뿐만 아니라 정신적 내용물과의 이별을 나타낸다' 따라서 강박증적 기술에서 우리는 유아적 의존에서의 취하기와 성숙한 의존에서의 주기 사이의 타임을 발견한다. 그와 같은 타협적 태도는 편집증적 개인의 태도와는 전적으로 상반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배설 행동은 오직 거절만을 나타낸다.

히스테리는 리비도 발달의 특정 단계, 즉 남근기 고착의 결과로 인한 상태로서, 특별한 거절 기술을 사용하는 또 다른 예를 제공한다.

그 상황의 보다 깊은 의미는 그것이 양가감정 단계(후기구강기)에서 본래 하나였던 대상이 두 대상, 즉 하나는 한쪽 부모와 동일시된 수용적 대상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한쪽 부모와 동일시된 거절하는 대상으로 분화되는 것을 나타낸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이디푸스 상황에 대한 죄책감은 이런 상황이 삼각 관계라는 사실보다는 (1) 근친상간적 욕구는 대가없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부모의 사랑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며, (2) 아이가 자신의 사랑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거절 받는 것으로 느낀다는 사실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나의 한 여자 환자의 사례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그녀는 아동기 동안에 심하게 근친상간적 환상을 자극하는 환경에서 살았다. 그녀의 부모는 불화로 인해 각기 따로 방을 썼는데, 그 방들 사이에는 서로 연결된 방이 하나 있었다. 환자의 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이 방에서 재웠다. 그녀는 어느 한쪽의 부모에게서도 애정의 표현을 받을 수 없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녀는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현실에서 보통의 아이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장애를 집안의 수치로 여겼다. 그녀의 지도 원칙은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독립적이 되도록 밀어 부치는 것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가갈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접촉을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십대에 어머니를 잃은 후에 그녀는 아버지와 정서적 접촉을 형성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아빠에게 함께 자자고 하면 아빠 마음에 들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처럼 그녀의 근친 상간적 소망은 대상과 정서적으로 접촉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고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소망은 특정한 오이디푸스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환자의 경우, 근친 상간적 소망은 물론 포기되었다; 그리고 예상되듯이 강력한

죄책감이 뒤따랐다. 그러나 죄책감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사랑을 엄마에게 요구한데 따른 죄책감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 자신의 사랑이 나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엄마와의 만족스럽지 않은 정서적 관계는 이미 구강 단계로의 퇴행을 발생시켰고, 따라서 젓가슴이 다시 대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메스꺼워서 잘 먹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아버지의 페니스에 대한 그녀의 거절 배후에는 엄마의 젓가슴에 대한 거절이 있었다; 그리고 젓가슴과 페니스가 동일시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관찰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히스테리 환자의 성기에 대한 거부가 오이디푸스 상황의 특정 성질에 의해서라기보다 히스테리 환자가 부분-대상으로서의 성기를 유아적 의존 단계의 본래적인 부분-대상인 젓가슴과 동일시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결정된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히스테리 환자의 성기적 사랑에 대한 거절은 유아적 의존 태도를 성공적으로 포기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 점에서는 편집증 기술과 강박증 기술에서 드러나는 대상에 대한 거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히스테리 기술은 거절된 대상을 외재화시키지 않는다. 히스테리 개인에게서 거절된 대상은 함입된 상태로 남는다. 따라서 히스테리성 해리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함입된 대상에 대한 거절을 나타내는데 있다. 동시에 히스테리 기술은 강박증 기술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이지만 줄 수 있는 능력(성숙한 의존을 나타내는)을 지닌 태도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히스테리 개인은 자신의 성적 기관들과 그 기관들이 의미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이상화를 포함하는 이러한 태도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의존을 형성하고자 하는 소망에 의해 동기화된 것이다.

p54

내가 대상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확신하게 된 것은 분열성 특성을 보이는 환자들의 분석을 통해서이다; 그것은 그런 개인들에게서 대상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분석 과정에서 그런 개인은 유아적 의존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소망과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필사적인 갈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치 생쥐처럼 외부 대상 세계를 엿보기 위해 은신처에서 기어 나오다가 황급히 후퇴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환자를 관찰하는 것은 흥미로우면서도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 환자가 유아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끈질기게 시도하면서 편집증, 강박증, 히스테리 그리고 공포증이라는 네 가지 과도기적 기술 중 하나 또는 네 가지 모두에 교대로 의지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런 사례의 분석에서 무엇보다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아이의 가장 큰 욕구는 (a) 자신이 부모에게서 진실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과 (b) 자신의 사랑이 부모들에 의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